

# 폐기물 침출수 불법 유출 의혹 무안 일로읍 퇴비공장 시설 개선없이 정기검사 통과 반발

### 주민들 "폐수 저장조에 이물질 가득...공장 폐쇄" 요구

폐기물 침출수 불법 유출로 주민들의 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무안군 일로읍 소재 A 퇴비공장이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최근 정기검사를 통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 퇴비공장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연배수에 의해 폐수저장조에 이송 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한 침출수에 대한 유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주민들에 의해 침출수를 유출시켰던 불법 통로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유출이 확인된 1주일 뒤 외부 반출 시설에 대한 보완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인근 10개 마을 200여 명의 주민들이 농성을 벌이고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A 퇴비공장의 침출수 외부 배출 시설에 대한 보완없이 정기검사를 통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폐수저장조에 이물질이 쌓여있는 등 폐수 재사용에 의심이 가는데도 수질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고 있다고 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관계자는 "불법 유출에 반발해 주민들이 농성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외관상 시설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이 합격 판정을 내린 사항이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A 퇴비공장은 지난 5일 무안군으로부터 침출수 불법 유출과 관련, 영일정지 1개월과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메타세쿼이아 길 연보랏빛 맥문동꽃 유혹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가을을 알리는 연보랏빛 맥문동꽃이 초록색 가로수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피어있다. (담양군 제공)

## 명문고·지역인재 육성 '보성군 장학재단' 출범

명문고 육성사업과 인재육성기반 조성사업 등 교육 지원을 위한 보성군 장학재단(이사장 김진수)이 출범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7월 28일 설립된 (재) 보성군장학재단은 매년 2010년 7월까지 2년간 4억2천만 원의 출연금과 군민 및 출향 인사들 대상을 모금 운동을 벌여 100억원의 기금증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안병식(62·보성읍) 씨가 1천만 원을 기부했고 독자들의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민간모금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후원회는 1계좌에 1만 원씩 분할 후원하는 방법과 일시금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61-850-5238)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 함평군 5개 농협 주민세 대납키로

함평지역 5개 농협이 관내 전 가구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한다.

함평·손불·함평천지·나비골·월야 등 함평군내 5개 농협은 함평읍을 비롯한 9개 읍·면 1만5천290가구의 2008년 균등할 주민세 8천400여만원(가구당 5천500원)을 대신 납부키로 했다.

이는 농협의 이익을 주민에 돌려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 체납에 따른 행정 업무량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함평농협은 지난 2004년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주민세 대납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는 전 농협으로 확대돼 함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은숙(41·함평군 함평읍)씨는 "비록 소액이지만 농협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뜻깊은 일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전력기술인 양성, 우리가 앞장선다"

순천제일대학이 전력산업 분야의 기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순천제일대학은 최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사업'에 따른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이달부터 2010년 7월까지 2년간 4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순천제일대학 전기자동화과가 전남 동부권 유일의 전

력계통 설비 및 전기제어 등 전문 전력기술인을 양성하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순천제일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수한 실용실습 기자재를 확보해 현대전력(주), 현대에너지이링(주) 및 에너지농장(주) 등의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체험 학습 및 현장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제일대, 사업자 선정돼 2년간 4억2천만원 지원받아

또 전문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 우수 신입생을 확보해 전남지역의 전력계통 설비 기술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성동제 회장은 "앞으로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해 취업률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순천 종합버스터미널 개통

지난 34년간 분리 운영돼 왔던 순천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20일부터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순천시는 20일 노관규 순천시시장과 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사진)을 갖고 천일고속과 금호터미널 대표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오전 11시 서울행 고속버스가 첫 출발했다.

통합 운영으로 매곡동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이 장전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시외버스터미널로 완전 이전돼 종합 버스터미널로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 여수, 10월 전국체전 개최 '이상 무'

### 진남경기장 관중석 증설·보조경기장 신설 등 마쳐

여수 등 전남에서 열리는 제 89회 전국체전 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10일과 16일 제 89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진남경기장의 관중석을 5천석 증설했고, 성화대와 스포츠 센터를 신설했다.

또 요트와 철인 3종, 야구, 농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도 이미 완공됐고 육상경기가 열리는 망마경기장의 공정률은 87%로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이밖에 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됐으며 체전 기간에 국제아트페스티벌과 여수예술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망마경기장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열린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체전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능력을 검증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화합체전', 바다와 꽃과 빛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친환경체전', 문화예술과 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알리는 '문화관광체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감동을 주는 '경제체전'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제 89회 전국체전은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여수를 비롯해 전남 17개 자치단체와 광주광역시(송마·수영), 경기도 성남(근대 5종 승마)에서 분산 개최된다.

## 농민은 생산에만...홍보·판매·유통은 郡이 책임 화순군 전남 첫 '파머리아 시스템' 구축

###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 '화순팜' 이달 말 오픈

화순군이 전남 최초로 '파머리아 시스템'(생산이력제)을 갖춘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인 화순팜(hwasunfarm.go.kr)을 구축했다.

화순군은 최근 10대 특산물과 화순 쌀의 생산 이력제인 파머리아 시스템 및 생산·홍보·판매·유통 단계의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파머리아 시스템은 생산과 홍보·판매·유통 등 단계별 체계를 구축, 고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행정기관에서 홍보와 판

매·유통을 책임지게 된다.

생산단계에서는 농특산물 생산 과정을 촬영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영농일지를 작성, 친환경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홍보단계에서는 홍보대상자 명단 및 평생고객, 향우회 명단을 전산화하고 판매단계에서는 '자연속'이라는 공동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택배비를 화순군이 지원해 농가부담을 덜고 판매된 농산물에 이상이 있을 땐 행정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달 잘 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3단계 농업 발전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3단계 발전 전략에 따르면 1차년도인 오는 2010년까지 ▲10대 특산물 ▲한방산업 ▲산림자원의 경영화로 요약되는 3대 핵심사업을 육성한다.

전완준 화순 군수는 "화순 파머리아 시스템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특산물의 품질은 화순군이 책임을 진다"면서 "이전 농산들도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민간이 운영 맡는다

### 郡 직영체제 한계...이달중 사업자 공모 나설 듯

'섬진강기차마을'과 '섬진강이야기마을'에 대한 재민 운영을 민간 업체가 맡게 된다.

곡성군은 섬진강변 폐철도에 관광용 증기기관차를 설치한 섬진강기차마을과 오곡면 송정리에 있는 섬진강이야기마을에 대한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공모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되 재정 및 운영 능력, 인력과 조직 상황, 마케팅 전략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기차마을과 이야기마을 운영을 한 합

체에 맡기는 일괄입찰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자칫 경쟁력이나 재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실기업이 시설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잡고 운영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인데 일부 공기업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기차마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배경은 지난 2005년 3월 개장한 기차마을이

정착 단계를 넘어 도약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익 증대나 마케팅 측면에서 공무원 직영체제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직영체제의 한계점으로는 관광객 증가에 비례한 공무원 증원, 관광객이 물리는 휴일 근무 문제, 연계관광 관련 프로그램 개발 부진 등이 꼽혔다.

섬진강기차마을은 연간 48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매년 9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곡성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또 섬진강이야기마을은 14만4천여㎡의 부지에 실경 생가터와 숙박시설 13동, 연수동 1동 규모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곡성=정필수기자 bungy@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 컨공단 '서측 배후단지' 요청

각종 세제혜택과 외국인 고용비용 확대 등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하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일 광양항에 운영중인 자유무역지역(675만4천㎡)에 오는 2012년까지 개발되는 서측 배후물류단지(212만5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컨부두공단은 그동안 동측 배후물

류단지를 포함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26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은 2009년까지 3천3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컨부두공단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배후단지를 포함한 해운항만 분야에서 총 2조2천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심의를 거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광양=김은종기자 chkim@

## '진돗개 월드 도그 쇼' 진도 10월3일 개최

천연기념물 제 53호인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월드 도그쇼가 열린다.

진도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간 진도 공생운동장에서 '2008 진도개 축제 월드 도그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우수 진돗개 선발대회의 틀을 벗어나 진돗개 활동 찾기, 진돗개를 통한 장애우 매개 치료, 인기 견종 전시, 놀이로 배우는 훈련 교실의 다양한 게임, UCC 동영상 당선작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진도=박영진기자 yhpark@

## 장흥 '정남진 물축제' 브랜드 대상 선정

장흥군이 올해 처음 개최한 '제 1회 정남진 물 축제'가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08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정남진 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주제를 1급수가 흐르는 탐진강을 배경으로 '물'로 설정한데다 시기도 1년 중 가장 무더운 때로 정하는 등 획기적인 기획이 좋은 평가를 받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반도 4대 특색 지역인 정남진과 정동진·정중앙(양구)·중앙진의 물을 합수하는 '통일과 화합의 물 합수식'과 2008년 통일이족 굿이기 시식, 각 읍·면 선수단이 뜨거운 경합을 벌인 팻목대회 등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물 포럼과 '찾아가는 미술관', 지역출신 작가와의 만남의 날 운영 등 지역문화자원을 융합시켜 축제의 격을 높인 점도 수



장흥군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한 정남진 물 축제가 '올해의 브랜드 대상(지자체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상 이유로 꼽히고 있다. 올해로 6회째인 브랜드 대상은 전국에서 소비자 3만9천541명이 직접 투표(50%)와 전화 면접조사(50%)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상식은 이명흠 장흥군수 등 각 분야별 1위 브랜드 CEO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내년 정남진 물 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관련 예산도 국비와 민자유치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